해남고구마 국내외 입맛 사로잡았다

꾸준한 특품화 사업으로 명성… 네덜란드 등 유럽 진출까지

郡 "친환경 면적 확대 등 품질관리 철저"

해남고구마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 그 맛의 차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남고구마는 지난 10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던킨도넛·베스킨라빈스), 샤니, 삼립식품 등을 계열사로 지닌 프랜차이즈 대표업체인 식품전문기업인 SPC와 판매협약을 체결, 국내시장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사(지사장 변동헌)를 통해 네덜란드에 60t을 수출한 데 이어, 10월에는 네덜란드 현지수입업체인 코스모 프롭스의 대표가 해남을 직접 방문해 해남고구마 생산자협회와 면담을 갖고 고구마 수입의사를 밝혀 유럽 진출에 밝은 빛을 던져줬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해남군에서는 1천여 농가가 전국 고구마 총 재배면적의 12%인 1천500여ha에서 연간 3만여t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고구마의 명성은 고구마 주산지역이라는 강점과 함께 사계절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물 빠짐이 좋은 황토의 조건으로 인한 천혜의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품질향상을 위한 해남군의 꾸준한 브랜드화와 특품화사업이 주효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현재 해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구마는 황토 고구마를 비롯해 호박고구마·물고구마·자색고구마 등이 있다. 이중 황토 고구마는 해남의 드넓은 황토밭에 농축돼 있는 칼륨과 칼슘 등이 화학적 작용을 하면서 당 함량이 풍부해 삶았을 때 단맛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월 고구마 분야 최초로 지리적 표시농산물 제 42호로 등록된 바 있다.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군은 국립 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연구센터와 연계해 우수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천연 당류물질을 활용하는 친환경 '스테비아(stevia) 농법'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70~80년대 대표적인 구황(救荒)작물이었던 물고구마의 경우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토종을 복원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친환경 인증면적을 대폭 확대해나가는 한편 품질향상을 위한 고구마 무병묘 생산, 계약재배와 엄격한 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성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목포 신항~동남아 신규 항로 2개 개설

물류비 줄이고 물동량 증가 '청신호'

목포신항에서 동남아, 일본 등을 운항하는 신규 항로 2개가 추가로 개설돼 물동량 증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목포시는 28일부터 목포신항에서 대만~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보르네오 간에 2만t급 선박 3척이 투입돼 주 1회 운항하는 신규 항로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에도 목포 신항~태국~말레이시아 항로도 열린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목포~부산~일본 도마코마이~아키타~니가타~고베~오사카~부산~목포~대만~홍콩을 오가는 항로가 개설돼 화물 운송이 활발한 상태다.

이번 항로 개설로 광주·전남권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물동량 증가로 연간 3만TEU(20피트 컨테이너) 정도의 물량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 목포항이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항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로 개설은 목포시와 전남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항로 개설과 화물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초 민자' 항만인 목포 신항은 2004년 6월 개장 이후 자동차 72만 3천여대 수출을 비롯해 현재까지 화물 처리량은 1천130만t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내년 농작물 재해보험 5개 작물 추가

참외·오이·딸기·토마토·배추… 전남농협 올 재해보험금 260억 지급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시설 참외 등 5개 작물이 추가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사과·배 등 13개 품목을 시범사업 품목으로 정해 추진중인 농작물 재해피해보험 품목에 내년에는 시설 참외·오이·딸기·토마토·배추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된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체 보험료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지만 전남도는 이 중 30%를 지원해주고 있다. 농가는 전체 보험금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보험가입 지원비 68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피해보험은 올해 전남도 내에서만 8천825 농가 1만815ha가 가입했으며, 가입실적이 매년 크게 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우박 등의 피해를 본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260억원을 오는 31일까지 전남도 내 4천724 농가에 지급한다.

이 액수는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피해를 본 농가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를 거쳐 산정됐다.

지역별로는 나주지역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 36억원 ▲해남 3억원 등이며, 품목별로는 배 등 과수가 240억원 ▲벼 18억원 ▲고구마·고추가 각 1억원 등이다.

올해는 특히 나주와 영암 등에서 우박피해가 가장 컸으며, 강풍에 따른 낙과피해, 단감 등의 서리피해, 벼 흰잎마름병 등의 피해도 폭넓게 나타났다.

/이종태·최권일기자 jtlee@

완도군 '지방세지출예산 운영평가' 우수기관

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꾸준한 연구검토와 각종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체계적인 자료 조사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용을 예산서 형식으로 정리해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감면이 있는지 점검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09년에 시범 공시한 완도군 비과세 감면액은 11억3천600만원으로 군세입 110억원의 10.3%에 달하는 규모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전체 90.2%,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분야가 57.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관계자는 "세목별 조사반을 편성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동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꾸준한 업무 연찬과 자료검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추진으로 철저히 대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군 2년 연속 '농촌 종합개발사업' 선정

함평군이 2년 연속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함평군은 28일 손불면 월천리 '해당화권역'이 농림수산식품부가 1, 2차에 걸친 서류 및 현지 심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민들의 추진의지 등을 평가한 결과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천700여ha의 간척지와 함평만 청정해역을 보유한 해당화권역은 오는 2015년까지 55억여원이 투입돼 해당화 체험장, 해당화 꽃길, 안악 해변 체험관광 시설, 수산물 양식장 및 판매장 등 갯벌과 천연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2005년 해보면 모평권역을 시작으로 2007년 신광면 가덕권역, 2009년 대동면 철성권역 등 3곳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야생동물 보호 위한 겨울철 먹이주기

전남도와 담양군은 지난 24일 담양 대덕면 만덕산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병행한 야생동물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불법 설치된 올무, 덫, 뱀그물 등을 수거하고 야생동물 서식 흔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900㎏ 상당의 고구마, 감자 등 먹이를 뿌렸다.

〈담양군 제공〉

장성 단광천 생태하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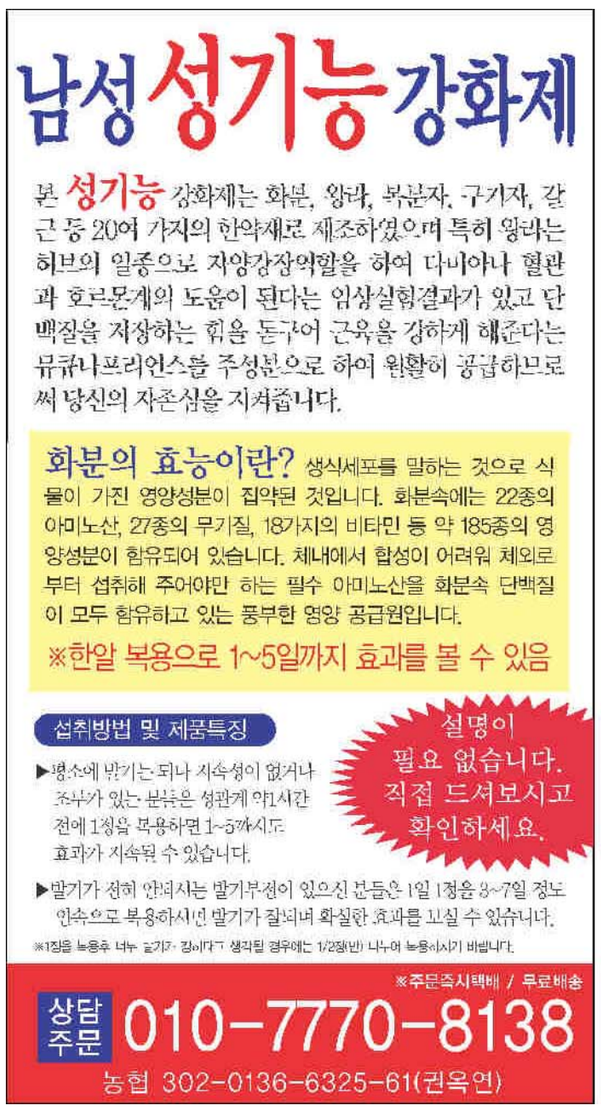
내년 3월 착공… 3년간 90억 투입

장성군이 황룡강 지류 하천인 단광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한다. 장성군은 28일 황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토대로 내년 2월께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3월중 사업발주 및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장성읍 단광리에서 황룡면 월평리까지 4.5㎞ 구간에 걸쳐 시행되며 3년간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한 월평 3교 하류부에 물놀이장이 조성되고 둔치에는 레크리에이션 공간, 식물관찰공간, 생활체육공간이 만들어지는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식물관찰 공간에는 꽃창포, 물억새, 부들 등을 활용한 수변공간이 조성돼 주민들의 휴식·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관계자는 "단광천은 황룡강을 거쳐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지방하천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